

유지 혈액 투석환자에서 발생한 흑모성 설1예

울지대학교 울지대학병원 내과학교실¹, 울지대학교 울지대학병원 피부과학교실²

송호섭¹ · 김민옥¹ · 김정호¹ · 강기운¹ · 방기태¹ · 조영훈²

A Case of Black Hairy Tongue in a Patient of Maintenance Hemodialysis

Ho Sup Song¹, Min-Ok Kim¹, Jungho Kim¹, Ki-Woon Kang¹, Bang Kitae¹, Cho Young-Hun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Eulji University Hospital Eulji University

Department of Dermatology² Eulji University Hospital Eulji University

서론 : 흑모성 설은 항생제 사용, 칸디다 감염증,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은 경우에 동반되는 일종의 양성 질환이다. 주로 혀의 배부에 사상유두의 과증식과 과각화증으로 검은색 혹은 갈색의 털 모양으로 관찰될 수 있다.

저자들은 만성 신부전으로 유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항생제 투여후 발생한 흑모성 설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전신 위약감을 주소로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로 내원 10여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5년전에 만성 신부전으로 일주일에 3회, 정기적으로 본원에서 유지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흡연력은 없으며 가족력상 특이 소견 없었다. 입원 당시 진찰 소견상 혈압은 160/80 mmHg, 맥박 90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8℃였고 급성 병색이었다. 결막은 창백하였고 구강과 혀는 건조하였다. 복부에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양 하지에 경미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말초 혈액검사서 백혈구 21,130/mm³, 혈색소 11.9 mg/dL, 혈소판 467,000/mm³이었다. 혈청 생화학 소견에서 AST 19 IU/L, ALT 14 IU/L, 알부민 4.7 g/dL이었으며, 혈액요소질소 30 mg/dL, 크레아티닌 5 mg/dL 였다. C-반응성 단백은 7 mg/dL로 증가되어 있었고 항마이코플라즈마 항체는 음성이었다. 흉부 X-ray에서 기관지염으로 의심되어 Flumoxef 500 mg bid, Clarithromycin 500 mg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혈액배양 및 가래 배양 검사에서 동정되는 검체는 없었다. 입원 7일경에 임상 증상 및 검사상 호전되어 퇴원후 인공 신장실에서 추적관찰 도중 혀의 배부 전반에 걸친 갈색의 색소침착을 관찰하였다.

항생제 중단과 하루 2-3회의 부드러운 칫솔질, 니스타틴 가글링을 병행한 후 색소침착이 점차 소실됨을 관찰하였다.

Key Words : 만성 신부전, 혈액투석, 항생제, 흑모성 설

Chronic Renal Failure, Antibiotics, Black hairy tongue